

14

많은 지체가 한 몸 안에

고전 12:12~27

은혜찬송 136장 (예수는 참 포도나무), 찬양 112장 (주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울



1.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압니다.
2. 교회 안에서 내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음을 알고 그 역할을 찾아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를 각각 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뿐이면 은 어디뇨 이제 는 많으나 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의 더 약하게 보이는 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전 12:18~22)



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도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손과 발, 눈과 귀, 입 등 여러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각각의 은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눈과 입은 거룩하고 귀한 지체이고, 손과 발은 고생만하는 천한 지체라고 생각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체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하여 함께 즐거워 할 뿐 아니라 고통에도 동참하여 고난의 짐도 서로 나눠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12)

For as the body is one and has many members, but all the members of that one body, being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Christ (1 Co 12:12)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몸과 지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 말씀 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지체에 속하는지 신체 부위(예: 손, 발, 눈, 코, 입, 귀 등)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고전 12:15~20).



나는 어떤 지체일까?

신체 부위: _____

이유: _____

2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봅시다(롬 12:4~8).

3

우리는 학생이기에 아직까지 나의 은사와 직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적어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고전 12:28~31).

4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전 12:31)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고전 13장). 내가 분반에서 형제자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롬 12:9~13).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고전 12: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고전 12:1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엡 2:21~2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엡 4:15

↑

엡 4:16

↑

엡 4:32

↑

골 2:19



교회의 의미

사람들은 목사인 저를 보면 제일 먼저 “오르띠즈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교회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교회요, 교회,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교회라고요?”

“아닙니다. 마침표는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냥 교회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혹시 교회 이름을 발견하시거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모든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본질상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됩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열 개의 1이나 다섯 개의 2로, 혹은 두개의 5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섯 그룹을 세 그룹과 두 그룹으로 나누거나, 혹은 한 그룹씩 다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2를 두개의 1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뉘어 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를 부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다리를 잘랐을 때, 당신은 “그들이 나를 둘로 나누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내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조각으로 부수어질 뿐입니다.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 하나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8~9)

질문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

성령 충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술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해 정확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할 때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이 이를 간절히 구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생애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